

종합·해설

박근혜 “호남예산·문화수도 적극 지원”

민생투어 광주 방문
총장로서 호남 구애
담아서 '1박' 강행군



총장로 차 전국 민생투어를 위해 12일 광주를 찾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동구 총장로에서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8대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전국적인 민생투어에 들어가면서 첫 방문지로 호남을 택했다. 박 후보의 이날 광주 방문은 지난달 23일 새누리당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이후 20일 만이다.

박 후보는 민생투어 첫날인 12일 전북 익산을 방문한 뒤 기차 편으로 광주로 이동해 광주역과 광주의 중심부인 총장로에서 시민들을 만나 소통의 폭을 넓히며 호남 민심 다지기에 총력을 다했다.

박 후보는 이날 광주역에서 열린 '동서화합을 위한 정책 홍보 및 18대 대선 투표참여 자원봉사단' 행사에 참석해 광주·전남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약속하며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대량평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광주의 내일이 걸린 자동차 산업을 적극 지원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와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호남에 필요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지역 현안사업에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동서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바라고 계신 광주시민 여러분의 열망

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곳에 왔다"며 "동서화합의 시작인 광주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길 부탁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어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만들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 "총장로를 비롯한 구도심을 활성화해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수도도 키우는 일을 저희 새누리당이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곧바로 광주 동구 총장로로 자리를 옮겨 총장로 3가에서 1가까지 1시간여 동안을 걸으며 시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박 후보는 총장로 파출소 앞에서 출발해 총장로 1가까지 걷는 동안 주로 대학생

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민들과 함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바다 민심을 듣는데 주력했다.

박 후보는 또 총장로의 한 커피숍을 방문해 대학생들과 취업문제를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과 취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답했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하면서 창의적이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지만, 등록금 때문에 아르

바이트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진로와 꿈을 찾기 힘들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등록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가 민생투어 첫 방문지로 호남을 선택한 것은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에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 17대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호남에서 8.9%를 득표했지만, 박 후보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20% + α"를 내부 목표로 잡아 '호남 구애'에 대한 행보를 넓혀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담양에서 1박을 한 뒤 13일 오전 충남으로 떠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노희용·박문서·오형근·임형진·조용진·홍기월 민주 동구청장 예비후보 6명 압축

최종후보 국민참여경선 확정 ... 새누리당도 주내 공천

민주당 공심위는 12일 동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된 12명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실시, 노희용 전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박문서 법무사, 오형근 성형외과 원장, 임형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용진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홍기월 동구의원 등 6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통한 2차 컷-오프를 실시, 3명 내외로 후보를 압축한 뒤,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국민참여경선은 동구지역 당원과 지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당원 투표 30%, 국민여론조사 70%를 반영한다.

하지만 당원 투표의 경우, 아직까지 정확한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를 또 다른 동원 경선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동구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원 참여는 불가피 하지만 직접 투표시에는 예비후보 6명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양 후보를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민주당은 그동안 풍문으로 나돌았던 특정 후보 공천을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배제하려는 불순한 저의를 드러냈다"며 "주민의 의견을 물어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

비쳤다.

이에 앞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손재홍 광주시의원도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현역 지방의원에 15% 감점을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탈락했다.

손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원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특히,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투표로 한정할 경우,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급주 안에 공천하기로 했다. 동구청장 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데 박근혜 대선 후보가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번 주 내에 적절한 후보를 전락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탈락 후보들 반발 ... 무소속 출마 하나

예비후보 6명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양 후보를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민주당은 그동안 풍문으로 나돌았던 특정 후보 공천을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배제하려는 불순한 저의를 드러냈다"며 "주민의 의견을 물어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

비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평



입취월장?!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安 “반값 선거운동” 文 “공감” ... 최저비용 대선 될까?

새누리당 “최소비용 노력”

연말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반값 선거운동을 약속하면서 이번 대선이 역대 최저자금이 투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법정선거비용의 절반만 쓰고 대선에 치르겠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동참을 촉구했고, 문 후보는 곧바로 공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도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값선거운

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박 후보의 입장은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쓰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력주자 3인은 저마다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가 제시한 반값선거운동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선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에 위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700만원이다. 반값선

거운동을 실현하려면 1인당 280억원 안팎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다.

선거비용을 줄이려면 수당과 식비, 일비가 지급되는 법정 선거사무관 관계자와 식비와 일비만 지급되는 비공식 선거사무원 수를 줄이거나 유세차 홍보를 줄이는 방법 등이 있지만,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가장 비중이 큰 신문·방송 광고비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박빙 구도인 현 대선판에서 각종 선거운동,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경우 그렇지 않은 후보

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이다.

한편 안 후보는 대통령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안철수 펀드’를 13일 오전 10시부터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모금 목표액은 280억원으로 18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인 약 560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금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펀드와 같은 연 3.09%이며 모금기간은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63주년
광주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환상제주 겨울시즌 BIG HIT! 제주여행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의섬 “제주 탐방” 투어

광주공항출발 (아시아항공) 아시아항공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229,000~
*최소인원 : 2명 (매일출발) *광주발 19:20 / 제주발 19:20 (광주착)

완도항출발 (블루나래) 블루나래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169,000~
*완도발 09:00~10:40 / 제주발 17:50~19:30

목포항출발 (씨스타크루즈) 씨스타크루즈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155,000~
*목포발 09:00~13:20 / 제주발 17:00~21:30

제주도골프투어 -항공/선박골프패키지 1박2일
포항시청: 왕복 고속버스 (해비치+세인트포기존 18층) + 해비치리조트 1박
보통시청: 카디미, 카미미, 신시, 항공부분 무료항공료
* 제주 모든 골프장 예약가능합니다. 권역 문의 주십시오!
(4인이상 1조 출발)

< 해비치+세인트포기존 18층 + [숙소] 해비치리조트 1박 >
◆항공/ 왕복항공(유류세별도) ◆선박/ 완도에 왕복 ◆선박/ 장흥해 왕복(도선 포함)
₩403,000~ ₩340,000~ ₩365,000~

◆장흥포항시청: 왕복항공, 호텔료, 전용차량, 관광지입장료, 조/중식, 여행자보험
◆장흥보통시청: 유류항공료(8월기준22,000원), 전 일정 식사, 기사/가이드 팀(1인 10,000원), 선배관광
◆선배관광: 선배관광(선배15,000원), 매직이랜드(선배15,000원), 라스베가스 매직타이거쇼(선배20,000원)

◆항공/ 왕복항공(유류세별도) ◆선박/ 완도에 왕복 ◆선박/ 장흥해 왕복
중급호텔(유류세별도) 주중 445,000원~ 주말 619,000원
중급호텔(유류세별도) 주중 389,000원~ 주말 488,000원

◆항공/ 왕복항공(유류세별도) ◆선박/ 완도에 왕복 ◆선박/ 장흥해 왕복
중급호텔(유류세별도) 주중 445,000원~ 주말 599,000원
중급호텔(유류세별도) 주중 389,000원~ 주말 468,000원
중급호텔(유류세별도) 주중 405,000원~ 주말 468,000원
* 편의시설등 ... 놀림 어린이 놀이방 무료 이용 가능

11월 해비치리조트 이용객 (일-목요일) 1인 3만원 인하 / 2인1실기준

여행사 파트너 모집 광주/전남 T.062-675-0064 담당: 공지혜 대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번지 금호종합금융 4층 | 제주 T.1600-4800 서울 T.02-6404-4708 부산 T.051-469-7030 대구 T.053-425-0747

환상제주 여행문의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이유여행사 374-1881
메이투어 070-7093-0555
한별투어 956-0045
침담/투어디자인 974-3050
무등파크여행사 228-7470
동구/다니엘여행사 227-7422
고고투어 603-4416